



위기의 전기산업계, 돌파구를 찾아라

종합, 입체적 심층분석, 대안제시 할 터
적면한 도전, 네트워크경영, 나노관리로 뚫어야

전기 산업계가 안팎으로 동시다발적 연쇄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 원자재가 파동과 함께 내부적인 장기 불황에 다 특히 건설경기의 하락조짐 등이 어우러지고, 개방개혁의 여파로 특히 중소기업의 젖줄이던 중소기업고유업종과 단체수익계약이 해지될 조짐이라 이대로 갈 경우 엄청난 파급영향이 업계를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가지 한가지 짚고 나가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일이 급선무로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발진 등 민활한 능동적 대안이 시급하다.

국제 환경 변화

최근들어 국제유가의 상승과 주요 원자재가의 앙등은 당연히 업계의 목을 죄는 가장 큰 요인이다.

배럴당 40달러나 가는 초유의 국제유가와 이에따른 각종 원자재가의 상승은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전기산업계로서는 마치 늪과 같이 점차 빠져 들어가는, 존재의 기로에 서게하는 심각한 존재다.

사실 국내 전기제조업 원자재의 60%가 수입에 의존되고 있으며,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원가 반영은 적어도

2~3개월이 걸려 반복되는 원가등락에 결국 뒷에 걸리는 것은 제조업체 밖에 없다.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밀지는 장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와중에서 자금난으로 결국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의 대안으로 한전 납품제품 등에 소요되는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는 장기저리의 원자재 안정자금을 마련하여 석유비축량과 같이 주요 원자재들을 대거 비축해 두고 어려운 상황에서 푼다는 등의 근원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개혁에 따른 제도 변화

이제껏 중소기업과 유업종과 단체수의계약은 국내 전기산업계를 유지하던 젖줄과 같았다.

물론 대기업과의 경쟁을 피해 만든 제도이지만 업체간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기술개발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력을 주었다.

이로써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기산업계에 양질의 제품을 끝없이 양산해 내고 전기분야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며 국내 전기산업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원천적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제 경제체제 개혁으로 이마저 없어지는 것으로 굳어져 가자 대부분 중소기업인 전기산업계를 초조

하게 하고 극도의 패닉현상마저 야기한다.

수많은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은 자명하고 일부 기업의 전횡으로 덤핑, 저질품의 난무 등 시장질서의 문란과 값싸고 질나쁜 중국제품의 무차별 유입으로 국내 전기산업시장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후퇴할 것으로 불길한 전망을 피할 수 없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잘 연구하고 배려하여 연착륙을 유도해야 하고 대응하는 상당한 안정적 대안들을 장치해야 한다.

건설경기 하락

경기부진에다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마저 크게 하락할 우려가 다분한데,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국내 전기산업계는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지독한 시련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골프장 2백개 허가 등 당국은 건설경기에 대해 낙관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금을 쓰지 않으려는 인식이 팽배해 수삼년간 급격히 건설분야 내수가 하락할 것은 당연시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의당히 따라야 한다. 업계 나름대로의 자구책은 물론 당국의 협력과 관련기관 유사업종들의 동반적인 협의회 구성 가동 등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들여 닥쳐 올 미래의 시련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대책 없는 전기산업계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없이 그저 가라앉는 배에서 초침만 재고 있는 양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고, 그 누구도 위기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만은 괜찮겠지, 나만은 살아 남을거야, 그 때 가면 다른 방안들이 나올 것이야 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생각들로만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기업들도 혼자만 살아 가던 시대는 끝났다.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들이 물고 물려 회전하며 유지해 나가듯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공존할 것은 공동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동해야 하며, 큰 힘을 모아 발휘해 나가는 한편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조정하는 나노경영도 귀찮다 말아야 한다.

본 전기저널은 확실히 다가 올 심대한 위기상황들과 새로운 환경의 전개에 맞서 국내 전기산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볼 연중시리즈를 기획, 다음달부터 게재한다.

이에는 전기산업계를 움직이는 모든 요인들을 모아 심층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제 그대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 전기저널 편집실 |